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포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 주제로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주제와 강사 확정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에서 개최하는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9월 6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새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 분야별 섬김 사역을 검토하게 된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의 사명을 살피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 2교시는 각 분야별 섬김 사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특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강의 제목과 강사는 ‘21세기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 (연세대 김광식), ‘노인 문제와

교회 역할’ (장신대 맹용길),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 (서울신대 정소영),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 (연세대 이원희),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 (한국교정선교회 이정찬),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 (다일공동체 최일도),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쇠의 상관관계’ (감신대 이원규), ‘복지관 운영과 교회’ (수서소망선교관 손은경),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 (요셉의 집 김재신),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 (수송교회 홍성현)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와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새로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성숙을 돕기 위해 1992년에 개원하여 한국 교회 갱신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총 15학기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1 교시	제 2 교시
사도행전 연구 이종윤 목사	21세기와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 김광식(연세대)
	노인 문제의 교회 역할 맹용길(장신대)
	교회 유아원과 지역 사회 봉사 정소영(서울신대)
	병원 전도와 호스피스 사역 이원희(연세대)
	교도소 선교와 수감자 가족 선교 전략 이정찬(한국교정선교회)
	실직자와 노숙자를 향한 섬김 사역 최일도(다일공동체)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 성쇠의 상관관계 이원규(감신대)
	복지관 운영과 교회 손은경(수서소망선교관)
	장애인 선교의 현주소와 대책 김재신(요셉의 집)
	나그네(난민, 외국인)에 대한 봉사 목회 홍성현(수송교회)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이번 주엔 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에는 고등부가 26일(월) - 28일(수)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울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학생들의 내·외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별공부, 특강, 부흥회, 공동체 훈련(천로역정), 사랑의 나눔, 찬양의 향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게 된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26일(월) 오전 9시이다.

▶ 각 부서 여름행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주에는 유치·유년·초등·중등부의 여름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초등부 성경학교 중 새 예배당 현장 학습 광경.



농촌전도대를 위한 지원

올 여름 농촌전도대는 충남 금산 마장교회로 파송되어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3박 4일간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농촌전도대는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대원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청·장년 또는 물질·금전으로 지원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 봉사 분야: 전도, 이·미용, 의료, 한방진료(침·뜸), 기타

▶ 필요 물품: 물·연막 겸용 휴대용 소독기(70만원), 경로당 들마루 2개(30만원), 도배·비닐장판 9평(13만원), 페인트·붓(7만원), 아동용 티셔츠 50벌(25만원), 대원용 티셔츠 70벌(42만원), 아동 간식 50명 3회(15만원), 주민초청잔치 40명 3회(60만원), 전도용 부채 500개(20만원), 수건 80개(40만원), 돋보기 50개(25만원) 등 총 347만원 상당.

탈북자를 위한 UN서명운동 현황

지난 한 주간 동안 10,23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7월 17일 현재 전체 목표의 66%에 도달했다.

중·고등부 학생의 경우 150명(서명 용지 5장 분)의 서명을 받는 것은 봉사 10시간에 해당한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주일에 2층 서명본부나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서명대로 하면 된다.

이사야 강해

복음이 주는 축복

이사야 25장 6-8절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앗시리아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불쌍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은 마치 죄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사 27:1, 28:8).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신 32:10, 시 9:9).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사 4:6). 그리고 하나님은 햇별이 내리쬐는 사막지대에서도 구름이 되시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출 13:21, 고전 10:1).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사 59:1).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뻗어 있습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의 잔치에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신다

아하수어로 왕은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에 1:4).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내용과 질이 세상의 어떤 것과 전혀 다릅니다(6절). 만군의 여호와가 베푸신 이 잔치는 만민을 위해 베푸신 것입니다. 잔치의 장소는 시온산 곧 교회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6절). 하나님의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면 사람이 힘을 얻듯이 믿으면 영혼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 복음은 말씀의 계시를 밝히 볼 수 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전이 벗

겨지리라”(고후 3:16).

수전이 얼굴을 가리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간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서 수전이 벗겨지므로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기시고 덮개를 제거하시는데(7절) 이것은 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시 25:6-8)



이종운 목사

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아직도 가려진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리개와 덮개가 사라지는 것은 시온산에서 복음이 선포 될 때이며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과오와 어둠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덮고 있었던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곧 본 사람이며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3. 복음은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죄

인들 앞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은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줄로 알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은 이미 정복된 원수입니다. 사망은 아직도 죄를 쫓

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벗어버린 자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마 5:4) 애통하는 것이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계 7:17, 21:4).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슬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참위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므로 우리는 참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이 땅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유치·유년·초등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 주셔요”

“뛰고 달리는 가운데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고”

문형미(초등부 교사)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 아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됐다.

첫 날 개회예배는 유년부와 함께 대예배실에서 드렸다. 성경학교 교장이신 이종운 목사님은 그림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에 대해 흥미롭게 설교해 주셨다. 간혹 옆 친구와 떠드는 아이들에겐 영적인 소경은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시간에 장난을 치는 거라며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 예배 후 공과공부 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외학습현장의 첫 코스는 새 예배당 건축현장이었다. 건축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기도카드에 적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를 드렸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도 올림픽 공원에서 시간은 즐겁기만 했다. 단지 점심식사를 준비해 오시는 집사님들이 약속장소를 찾아 헤매시느라 점심시간이 늦어지자 배고픔을 호소하며 참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을 보며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정성껏 준비해 오신 메뉴로 배가 부른 아이들은 언제 투덜거렸냐는 식으로 다시 비지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갔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도 했지만 비를 피했던 것은 잠시, 빗줄기가 가늘어 지면서 일제히 릴레이를 진행하며 첫 날의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 역시 예배로 시작. 이성득 목사님이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셨다. 만들기와 음악반으로 나뉘어 특별활동을 진행한 후 다시 현장 학습에 나섰다.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돌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의사당 내의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어린이들은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다. 몇몇 아이들은 국회의사당을 어른들이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의사당을 관람하고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들러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는 합심의 기도를 드렸다.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은 여의도 수영장에서 마음껏 즐기는 시간으로 장식했다. 아이들

은 마치 그간의 답답했던 생활을 벗어버리려 는듯 물에 뛰어들고 또 뛰어들며 마음껏 여름을 즐겼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말씀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이들이 듣고 보고 뛰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로 그간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영·육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 받아 더 밝은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길 기도했다.

“역시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

오호준(유년부)

성경학교 첫날인 월요일. 초등부 형들과 함께 찬양연습을 하고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1층 예배실에 가서 찬양대에 섰다. 찬양할 때 나는 열심히 불렀다. ‘나와 다른 아이들과 형들이 힘껏 부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년부실로 와서 분반공부를 했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마음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어느 의사보다 더 잘 고치시는 의사시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요절을 외우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식사시간과 게임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양재 시민의 숲에 갔다. 동그렇게 서서 찬양을 한 후 조를 짜고 조장을 뽑고 순서대로 출발했다. 첫 코스는 5분 안에 퍼즐 맞추기였다. 우리는 시간 안에 퍼즐을 다 맞추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 어쨌든 다행이었다. 그 다음 코스에서는 다 맞추지를 못해서 우리 친구들과 1분 정도 얼음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나는 조장이라 2분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발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도 고치시는 의사시니까 나의 아픔도 고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진짜로 아픈 것이 많이 나왔다.

‘역시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려운 일들도 꼭 참겠어요”

정윤지(유년부)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양재시민의 숲에 갔다. 1코스에서 8코스까지 있었다. 제일 힘든 게 눈을 가리고 11개의 물체를 알아 맞추고 얼음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노래를 부르는 거였다. 이제는 힘든 일도 꼭 참아야겠다. 나중에 또 다른 힘든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골프공을 굴려서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다. 처음엔 못했는데 갑자기 잘하게 되어서 그런가보다.

집에 왔을 때는 다리가 아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일생을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윤도희(유치부 교사)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셔요”라는 주제로 7월 17, 18, 19일 3일 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었다.

첫 날 예배는 본당에서 사랑부, 소망부와 함께 드렸으며 유치부실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성경나라 성경공부’를 하고 난 후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새 노래 배우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게임을 하고 첫날을 마쳤다.

둘째날인 18일 주일엔 9시부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보고 ‘성경나라 성경공부’ 둘째날 분을 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 예절을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 날인 19일. 야외로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먼저 교회에서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한 후 양재시민의 숲으로 출발했다. 장애물넘기, 사탕먹기, 수박먹기 등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 특히 수박먹기 게임에서는 수박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 어른들로부터 기특하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4면에 계속>

●그리스도인의 여름나기●

영·육 건강캠프를 떠나자

이운진 집사(제 4교구)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 더위에 어떻게 휴가를 보내지? 그래, 가족 건강캠프를 떠나자.

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 낮익은 성인병들이 이제는 나이아나남·녀를 불구하고 마구 엄습해 오고 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몇 가지가 셋트로 덮치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병은 우리가 추구해 온 많은 문명의 이기, 단일함 풍요가 가져다 준 자업자득의 병이다. 검사에 나타나지 않아 지금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나 내 몸 어느 구석에선가고 약한 암세포가 서서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시절의 가난한 마음과 단순한 식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회복될 것으로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과식, 편식, 미식, 오식으로 인한 식독은 배설장으로 숙변을 만들고, 숙변의 독소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 피를 오염(오혈) 시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임상병리 검사 중 피검사를 가장 많이 응용하고 있다.

원시적 음식의 형용사적 표현은 whole(一物全體食), alive(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nontoxic(독성이 없는 식물), varied(계절마다

다양한 음식 섭취), indigenous(신토불이), scarce(사람 수보다 조금 적게 이용할 분량만 준비)라고 한다면, 현대는 인공감미료, 방부제 등이 든 가공식품들이 국적도 없이 유통되며, 냉장고의 발달로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풍요로운 생활에 익숙되어 있다. 원래 인간은 에텐동물에서 과·채식주의자였는데(human being is originally a vegetarian or a fruitarian species.), 농경사회가 오면서 곡류를 먹게 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육류를 먹게 되었다고 한다.

자동차도 너무 오래 타고 나면 만든 회사에 가서 불령을 해야 한다. 일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내 욕심대로 먹고 마시므로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며칠만 냉장고,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등이 없이 성분 조성이 인체 생리에 가장 적합한 현미밥에다 5대 영양소를 균형있게 맞추어 매일 조금씩 자연식품을 사서 천연조미료(된장, 간장, 흑설탕, 바다소금...)로 간을 하여 음식을 만든 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음식 한 숟가락을 떠 넣고 그 숟가락을 놓은 뒤 천천히 씹어서(소화 조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입뿐이다) 어떤 소화제보다 더 좋은 소화효소가

분비되게 하며, 성경을 마음껏 묵상하고,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산과 바다를 거닐기도 하며 창세기 시절의 단순했던 삶으로 돌아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자.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 체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세포의 질도 바뀐다. 히포크라테스도 말했다. "음식으로 당신의 약을 삼아라"(Let food be thy medicine.)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시103:4)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세우며 기도하고(살전5:16-18) 원시적 식생활(창1:29)로 잠시 돌아가 하나님의 전(展)인 우리 몸에 탐욕스런 잡다한 것들을 마구 집어넣은 죄를 회개하자.

수정되는 순간부터 세는 한국적 나이 계산법이 건강에서는 더욱 과학적이다. 좋은 유전자를 전해 받을 수 있고 잘 키워주신 부모님 주신 것과 좋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과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식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강 캠프를 떠나자.

한 가족의 질병은 대체로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강법도 성경에서 발견하고 영·육이 회복되는 계기를 가지는 금세기 마지막 여름 휴가로 온 가족이 함께 영·육 건강 캠프를 떠날 것을 제안해 본다.

<3면에서 계속>

보물찾기에서는 보물이 적힌 쪽지를 두개씩 찾은 어린이들은 못찾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양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고 기도로써 여름성경 학교를 마쳤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더운 기후도 아랑곳 않고 오셔서 점심 준비 해 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매년 성경 학교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손길들로 인해 영혼의 잔치가 풍성해지고 어린 생명들이 그 사랑 속에서 살지게 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는 마쳤으나 성령님께서 아이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어 이들의 일생이 고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한다.

■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26일(월) 기독교교도소 확대 임원회를 소집하고 기독교대학연구위원회에 참여한다. 29일(목)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재위원회에서 제 84회 총회 주제 발표를 한다.
- * 한규혁 성도는 22일(목)에, 유동훈 성도는 29일(목)에 각각 입대.
- * 김영화 집사는 20일(화)서울지방경찰청 경비2과장으로 전보발령.
- * 이번 주 식사는 이보우·서욱덕 집사 가정에서 제공.
- * 한나 제 2전도회는 26일(월) 새에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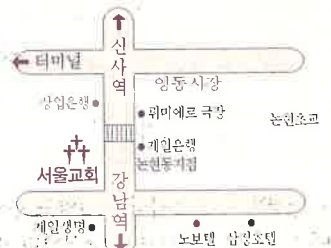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2. 충남 금산에 파송될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3. 비전2020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